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abaum) in Hongkong
jihyun.lee815@gmail.com

인도 해비타트 센터

Indian Habitat Center

이번호에 소개하는 해외건축동향은 지난 6월호에 이어 여전히 인도, 북쪽 지방의 뉴 델리에 위치해 있는 Indian Habitat Centre이다. Habitat을 번역하면 “서식지” 라는 뜻을 가진 이 곳은 도시개발과 환경관련 업무를 보는 사무실의 개념을 떠나서 인간의 이상적 서식지라는 좀 더 큰 근본적 개념을 가지고 계획된 곳이다.

■ Indian Habitat Centre의 역사

인도 해비타트 센터-Indian Habitat Centre-는 1993년, 주택 및 도시개발공사(HUDCO)가 추진한 공공 프로젝트로서 이상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이념을 가지고 주로 비영리 단체를 설계에 참여시키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인도 해비타트 센터는 여러 포럼을 통하여 첫째는 지역 사회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추진, 인도 전체의 도시개발과 건축되는 환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둘째는, 그에 따라 인도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HUDCO의 회장과 건축사 조셉 앨런 슈타인-Joseph Allen Stein-은 전통적인 “사무실” 건축의 개념을 넘어 더 큰 도시라는 프레임 안에서 부분, 도시적 개념으로서의 건축 프로젝트를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이들이 계획한 뉴 델리의 해비타트 센터의 주된 프로그램은 사무실, 일반 회의실, 공용 주차장, 도서관, 레스토랑, 박물관, 호텔 등이다. 사무실 공간은 인도 전역의 도시와 주택공사의 상호 협력적인 사무를 돕고자 연계된 각각의 분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슈타인은 이 센터가 디자인, 문화, 경제의 이상을 공유하는 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과 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물리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현재 이 기관에서는 여러 극장 공연, 민속 예술, 미술 전시회, 영화 쇼 및 토론 포럼은 물론 비주얼 아트 갤러리,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갤러리와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반 대중의 역동적인 활동공간이 되고 있다.

■ 디자인

이 건물의 디자인은 인도에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건너온 미국의 건축사로서 1950년대 이후 인도의 거장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했던 조셉 알렌 슈타인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가 구사하는 건축적 언어, 건축물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험 등은 그의 건축의 이상을 잘 표현한다.

슈타인은 이 건물이 작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을 구상하였다. 도시에 작은 길과 건물과 광장이 있는 것처럼, 이 Complex 안에도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다. 5개의 빌딩 블록들을 그리드 선상에 어긋나게 배치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열린 중정이 다른 중정의 입구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전체적인 건축물의 높이는 30m로 각각의 매스들이 공중 통로로 연결시켰으며 붉은 벽돌로 마감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장엄함을 부여하였다.

각각의 중정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는 이유는 중정의 비례Scale때문이다. 또한 매스의 배치가 조금씩 어긋나서 한 중정에서 다른 중정으로 이동할 때 보여줄 듯 하면서 보이지 않아 각각의 공간에 도착할 때 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공간들에 놀라게 된다. 각각의 중정은 세심한 조경디자인으로 인공적 공간이 아닌 자연의 한 공간에 와 있는 것 같다. 30m에 달하는 규모의 중정이 노출 콘크리트로 된 기둥에 의해서 나누어지며 또 다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을 반복하여 전체적 Complex는 디자인의 단순성을 잃지 않으면서 복합성이 내재되어있다. 조경공간의 바닥에 레벨의 차이는 때로는 보행자로서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의 동선분리 역할을, 때로는 원형극장을 형성한다.

건물의 입면에는 수평, 수직으로 슬롯을 사용하여 열대성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고 식물들이 건물을 덮어 마치 열대 우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열린 하늘에 설치되어있는 파란 색깔의 차양은 인도 북쪽 지방의 견디기 힘든 열과 빛을 자연적으로 70% 차단하면서, 이 건물의 조형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외부 중정 정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차양의 흥미로운 패턴은 돌과 벽돌로 마감된



shading devices

바닥에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 내어 태양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상층 곳곳에 설치된 바닥면의 샤프트-shaft-는 지하층까지 자연광을 들이게 하며, 잘 설계된 배수 시스템은 파이프를 사용할 필요 없이 구조적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그 구조 자체의 형태를 드러낸다.

■ 건축사 JOSEPH ALLEN STEIN

조셉 알렌 슈타인 (1912년 - 2001년)은 1940~1950년대에 있었던 미국 건축의 지역주의, 환경주의 운동을 주창했던 주요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의 University of Illinois와 프랑스 파리의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에서 수학하고 Richard Neutra와 Eli Jacques Kahn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에 San Francisco에 자신의 사무실을 설립하였다.

그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문제였다. 실제로 그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재료와 시공방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와 생각을 같이 했던 그룹 "Telesis"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였다.

1950년 그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매카시즘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찾

courtyard_complexity



whole complex_habitat centre

을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멕시코, 그 다음으로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인도의 캘커타 지역이었다. 그는 캘커타의 벵골 공과 대학(Shibpur 지금 인도 연구소)에서 교수직을 얻고 후에 인도 델리의 Lodhi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하나 둘씩 설계하면서 인도에서 건축사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게 된다. 오늘날 뉴델리에 Joseph Stein Lane이라고 길 이름을 건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은 이 건축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를 지레 짐작하게 한다.

이 건축사와 그가 구상했던 작은 이상 도시 Habitat Centre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 그는 인도인이 아니라 이민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도 당국이 그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여 지금과 같은 Habitat Centre를 실현했다는 데에 있지 않을까.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건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통성과 지역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인도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수용성은 꽤 긍정적으로 보인다. 한 미국의 건축사가 인도에서 자신의 건축적 이상을 펼치고자 Habitat Centre같은 Complex를 계획한다는 것은, 먼저 아이디어를 품은 건축사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또는 일개 당국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담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언론과 문화적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도는,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는 다른 레벨에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의 빠른 수용성은 미래에 다른 서양의 국가들이 이뤄낸 것과는 다른 성격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실현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다.

facade

